

새해 새 설계

유신열 광주신세계 대표

“변화·혁신경영 통해 제2도약”

“지역의 행복가치를 창조하는 혁신 기업이 되겠습니다.”

7일 유신열 광주신세계 대표이사는 광주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지역민의 행복과 자사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혁신을 2014년 경영 화두로 제시했다.

유 대표는 “올해는 광주신세계의 성공적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며 올 한 해 동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경영을 통해 제2도약의 길을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는 지난 1995년 현지법인으로 출발한 광주신세계가 그간 운영시스템의 중심이었던 지역친화경영의 바탕 위에 ‘조직’과 ‘콘텐츠’의 과감한 혁신이라는 노력이 있어야만 향후에도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민의 행복’과 관련 유 대표는 “지역과 지역민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경영활동을 더욱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며 사회적 책임경영 실천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유 대표는 신개념의 지역상생 나눔 프로젝트인 ‘희망배달마차’ 운영, 대인시장의 기적이라 불리며 지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해뜨는 식당’ 재개장 지원, 양동시장 소·도매상 영업활성화 프로젝트인 ‘희망가게’ 오픈 지원 등을 언급하며 올해 역시 실질적이고 독창적인 광주신세계만의 지역



가치 마케팅 역량 집중

지역 공헌 프로그램 개발

정학·문화예술사업 지원도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 밖에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장학사업, 지역 문화예술지원 사업, 중소기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와 계층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지원도 결코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성장을 위한 혁신”과 관련 유 대표는 “액티브하고 스마트한 조직 구축과 콘텐츠 혁신을 통한 기업 브랜드 가치 제고를 강력

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유통업 본질에 충실한 경영역량 집중 ▲고객관점의 서비스제도 혁신 ▲지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상품 밸런스 및 포트폴리오 재구축 ▲지역상권을 선도하는 가치마케팅 심화 등을 제시했다.

유 대표는 지역 유통 환경과 관련, 국제도시로 발돋움하는 광주가 국내 주요도시와 비교 사회·문화적 인프라 측면에서 일부 취약한 점이 있다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그는 올 연말 개통예정인 광주~서울간 호남고속철도(KTX)와 내년 개최예정인 하계 U대회,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줄지어 대기 중인 상황에서 이러한 환경변화에 걸 맞는 유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게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유 대표는 이어 부의 역외유출을 최소화하고 광주를 세계적 명품도시로 성장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광주신세계가 갖추어야 할 경쟁력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2월로 취임 1주년을 맞는 유 대표는 용인 출신으로 서강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신세계 경영지원실 사무국 과장, 경영관리팀 팀장, 기획담당 상무 등을 지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IC칩 없는 MS카드 내달부터 현금 인출 못해

카드 불법복제 소비자피해 예방... IC카드 교체 당부

다음 달부터 반도체집(IC칩)이 내장되지 않은 MS(Magnetic Stripe)카드를 이용한 현금 인출이 전면 중단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 불법복제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MS카드를 이용한 ATM 현금 인출이 전면 중단된다고 7일 밝혔다. 즉시교체 대상 카드는 현금인출 기능이 부가된 모든 MS카드로, MS현금카드·MS신용카드·MS체크(직불)카드 등이다. 이들 MS카드를 통한 구매

거래·현금서비스·카드론 거래 등도 2015년 1월부터 전면 중단된다.

지난해 말 현재 교체 대상카드는 67만장이며, 하루 평균 약 1만3000여장이 사용되고 있다.

이달 중 카드를 교체하지 않으면 현금인출을 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2004년 이후 카드 불법복제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현금카드 중에서 ‘마그네틱 띠(Magnetic Stripe)’만 부착돼 복제가 쉬운 MS카드를 반도체집이 내장돼 복제가 어려

운 IC(Integrated Circuit)카드로 전환을 유도해 왔다.

2012년 5월 발표한 ‘MS카드의 IC 전환 종합대책’에 따라 MS카드를 이용한 ATM 현금인출이 지난해 2월부터 일부 제한되고 있으며, 내달 3일부터 전면 중단된다.

MS카드를 소지한 고객은 카드발급 회사의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면 ‘IC현금카드 교체발급 전용창구’에서 대기하지 않고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아직 IC카드로 전환하지 못한 MS현금카드 소지자들이 조속히 전환을 완료하도록 금융회

사와 함께 1월을 ‘IC전환 특별대책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금융원 관계자는 “MS현금카드 소지자는 누구나 불법카드 복제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지금 당장 소지하고 있는 MS현금카드를 IC현금카드로 교체해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07년 이후 MS카드 복제에 따른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2년 1만건(1만964건)을 넘어섰으나, IC카드 전환 적극추진에 따라 지난해에는 9810건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연합뉴스



aT, 중소식품기업 협력지원사업 모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김재수)는 중소식품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4년 중소식품기업 협력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복수의 중소식품 관련 법인·기업으로 구성된 공동법인, 업무협약 체결 연합체, 농공상융합기업 및 연합체, 협동조합 등이다.

이 사업은 중소식품기업들이 협력해 기술과 제품 개발, 판매촉진, 정보수집, 해외시장 진출, 수출협업 등 공

동 사업자금을 조성해 추진하는 경우 정부가 매칭자금을 지원한다. 국고보조가 50%(자부담 50%)로 최대 3억원까지 지원된다.

참여 자격은 업체간 연합체나 공동법인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체로 합산 매출액 30억원 이상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다음 달 14일까지 aT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foodbiz.or.kr)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신청하면 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 ‘그린퍼맨바이오’ 출시

광주에 본사를 둔 호남지역 최대의 알로에 제품 전문업체인 그린알로에가 새로운 유산균 건강기능식품 ‘그린퍼맨프로바이오-50’를 출시했다.

7일 그린알로에에 따르면 식약처로부터 품목제조허가를 받은 그린퍼맨프로바이오-50은 5종, 50억 개체의 유산균을 주원료로 해 소화기 건강에 도움을 주는 국내산 6종의 곡류, 6종의 과일, 12종의 채소를 발효시킨 효소가 담겨있다.

8종의 복합효소 분말, 브로멜라인, 치커리추출물 분말, 매실농축액 분말, 알로에베라겔 분말, 비타민C, 건조효모 등 다양한 부원료도 함유하고 있다.

특히 유산균과 효소를 함께 섭취할 수 있어 영양소의 소화가 일어나는 주요 장소인 위, 영양소의 흡수가 일어나는 소장, 노폐물의 배설 통로인 대장 등 모든 소



화 기관의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 큰 강점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

송은 그린알로에 이사는 “현대인들이 바쁜 일상, 불규칙한 식습관, 스트레스, 과음, 과식 등으로 장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며 이 제품 개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합성보존료, 합성감미료, 합성착향료가 함유되지 않은 ‘3무 제품’이자 모든 제품에 1%의 중국산 원료도 사용하지 않은 ‘정직한 제품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신세계그룹, 10년간 31조 투자 17만명 고용

백화점·이마트 등 핵심사업 강화, 신성장동력 발굴

신세계그룹이 향후 10년간 총 31조 원을 투자해 백화점과 이마트 등 핵심사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신성장동력 발굴과 육성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매년 1만명 이상 17만명의 총고용을 유발해 내수경기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신세계그룹은 6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정몽진 부회장 등 임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룹 경영전략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영계획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워크숍에서 신세계는 2023년까지 총 31조4000억원(연평균 3조1000억원)을 투자, 협력사원을 포함해 총 17만명(연평균 1만7000명)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올해 투자액은 작년의 2조4000억원보다 8.3% 늘어난 2조6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경기도 하남의 교외형 복합쇼핑몰, 고양 삼송지구 복합쇼핑몰,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김해 복합터미널 등에 집중 투자된다. /연합뉴스

중장기 투자계획을 분야별로 보면 백화점과 이마트 등에 12조8000억원, 쇼핑센터와 온라인, 해외 사업에 13조8000억원, 기타 브랜드 사업 등에 4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백화점은 대형 상권 점포를 기존 본점, 강남, 센텀시티, 광주, 경기, 인천 등 6개점에서 동대구·울산 등을 포함한 10개점으로 늘린다.

또 신세계는 인터넷, 모바일, 오프라인 매장 등 여러 유통채널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온니체널’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침구 속 진드기 살균 이렇게

7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8층 가정매장에서 직원이 침구청소기 작동 시범을 보이고 있다. 진동으로 침구 속 미세먼지를 흡입하고 진드기를 살균하는 침구청소기는 겨울철 일조량 부족과 집안 환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고객들로부터 인기가 높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Advertisement for '개업기념 특별 할인행사' (Grand Opening Special Discount Event) at '이지에우리' (Eziweuri) in Gwangju. It features a woman in traditional Korean attire and lists various services like wedding, graduation, and group events.

Advertisement for '결혼정보' (Wedding Information) by KBS1TV '아침마당' (Morning Market). It promotes a service for finding wedding partners and lists various professions and ages of potential matches.